

# 3000년 이어온 양잠, 기능성산업 ‘재도약’

10일 ‘제1회 잠업인의 날’ 성료

풍잠기원제 제례행사 진행  
유공자 표창·학술 심포지엄도  
“누에사육 위생관리 힘써야”  
“정부, 잠업 육성 적극 노력”

양잠 종사자들의 노고를 기리고, 양잠산업의 다양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1회 잠업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대한잠사회는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잠업진흥원에서 정부 관계자 및 양잠 산업 종사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잠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연구성과 및 양잠제품 전시회 △풍잠기원제 제례행사 △양잠 재도약을 위한 민관합동 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본식에 앞서 진행된 풍잠기원제 제례행사에서는 4개 양잠단체와 양잠농가, 청주시 유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류를 위해 희생한 잠령을 기리고, 올해 풍년양잠을 기원했다. 본식에서는 매년 5월 10일을 잠업인의 날로 선포하고, 그동안 양잠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임석종 대한잠사회 회장은 “잠업인의 날은 3000여년을 이어온 민족의 전통산업인 양잠 산업을 계승·발전시켜 온 양잠 산업인의 노고를 기리고, 사기를 북돋는데 그 뜻이 있다”며 “양잠 농



대한잠사회는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잠업진흥원에서 ‘제1회 잠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제1회 잠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 풍년양잠을 기원하고 잠령을 기리는 풍잠기원제가 진행됐다.

가분들은 누에사육에 있어서 ‘우리 가족의 먹거리’임을 인식해 위생적 관리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라고, 대한잠사회는 양잠 산업의 컨트롤타워 겸 메카가 돼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안형근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과장은 축사를 통해 “잠업 분야는 실크 중심의 산업에서 벗어나 기능성 제품과 의료용 소재, 그리고 화장품 소비 등

범위가 넓어지고 부가가치 또한 상당히 높아졌다. 농식품부에서도 잠업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오늘 제1회 잠업인의 날이 앞으로 잠업 분야가 성공적인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양잠과 관련 다양한 주제로 민관합동 심포지엄도 개최됐다. 심포지엄에서는 △글로벌 건강기능식품시장과 기능성 소재의 글로벌화 전략 △흥잠의 기능성 연구 현황 △실크의 소재화 연구현황 및 전망 △건기식 누에시장의 활성화 방안 △한잠원 브랜드 제품 개발 및 양잠산물 경쟁력 제고 등을 주제로 발표와 종합토론 등이 진행됐다.

또 행사장 한쪽에는 국립농업과학원이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시제품을, 양잠연합회와 한잠원 등이 시중에 판매·수출하고 있는 양잠제품을 전시해 기념식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한편 양잠산업은 해방이후 국가경제를 이끌었던 원동력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대체섬유의 개발과 생사수입자유화 등으로 인해 사양 산업으로 전락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입는 실크’에서 ‘먹는 실크’로 변신했고, 건강기능보조식품의 원료뿐만 아니라 양잠산물의 생리활성화물질을 이용한 의약재 개발과 실크단백질 이용산업, 의료용 신소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성양잠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